

영어

18. 정답 1번

글의 목적: 학교에 예정된 공사가 학생들에게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글이다. 'Therefore, we are asking for parent volunteers to help~'에서 목적을 알 수 있다.

19. 정답 1번

심경변화; 폭설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어 실망했지만 다른 곳으로(The Plant Zoo) 가게 되어 결국 기뻐하는 내용이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20. 정답 2번

주장; 마지막 문장에서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은 기꺼이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 때이고, 두려움을 맞이하고 미지의 것으로 들어갈 때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1. 정답 2번

밑줄의미;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자의 주장을 파악해야 한다. 'Gold plating'이라는 낯선 소재가 나왔지만 속성을 파악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문장에서 언급된 '예상된 결과를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것'에서 화제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접속사 'therefore'를 통해 '전문가는 만족시키지만 고객의 요구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프로젝트의 가치있는 자원을 제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소재인 'gold plating'은 '마이너스'라는 선지를 찾아 해결한다. 2번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작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다.

22. 정답 1번

요지추론; 이민자들이 새롭게 정착한 국가로 동화할 필요성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도 고유의 특성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번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이다.

23. 정답 5번

주제추론; 상업적 음악 라디오 방송의 목적은 광고주들과 스폰서들에게 청중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고, 대중으로 모인 청중들의 '수'가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방송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했다. 즉, 많은 청중들을 확보하는 것이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번 '많은 청중을 끌어들려는 음악 라디오 방송국의 시도의 결과'이다.

24. 정답 1번

제목추론; Before the web(인터넷 이전시대)에서 신문 기록보관소는 고풍내나는 가치 없는 공간이었고, 오래된 이야기는 최근의 이야기를 위해 인용만 되어지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그에 비해 온라인의 뉴스는 신문과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뉴스의 맥락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25. 정답 3번

도표; 2011년 Hispanic의 대학 등록률은 35%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35%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26. 정답 5번

내용일치; 피아노 연주를 계속했기 때문에 5번 '중단했다'는 틀린 문장이다.

27. 정답 2번

안내문; 행사는 주말이 아니라 주중(weekdays)에 진행된다.

28. 정답 5번

안내문; 학생들이 선택한 사진들(photos selected by students)이 전시되는 것이 옳다.

29. 정답 3번

어법; ing의 경우 준동사이기 때문에 ing를 제외한 주어와 동사가 존재해야 한다. When(접속사) you(주어) feel(동사), realizing that(접속사) it(주어) is(동사). 부사절when SV을 제외하고 명사절(thatSV)을 제외하면 주절이 없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 즉 realize ~가 되어야 한다.

30. 정답 4번

어휘추론; 상반부에서 언급된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문장과 문장사이의 관계를 보고 어휘선택을 파악해야 한다. 장소(place)의 가치가 높다고 언급하면서 과거(until 1970)와 현대(산업혁명)를 바탕으로 시간상 대조를 보여주는 글이다. 산업혁명이후 섬유와 직물의 생산은 더 이상 장소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3번 문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같은 내용을 this(순접)으로 받았지만 주어진 내용은 소비자와 제품사이의 단절을 반박했다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앞과 연결되지 않다. 따라서 긍정의 의미인 facilitate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31. 정답 4번

빈칸추론; 빈칸문장 앞에서 언급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생긴 여가활동(leisure)의 속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빈칸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도시중심에서 교외지역으로 옮겨 간 사람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같은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privatization(사유화/개인화);가 정답이다.

32번 빈칸 추론 [정답 2]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항이다.

우선 지문 전체의 핵심 소재는 'tag'이다.

빈칸의 문장에서는 특징적 표현인 "But"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전 문장과 정반대의 맥락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칸 문장은 매우 단순하다. 문맥상 "tag는 빈칸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이후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빈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빈칸 이후의 핵심은 "tag"가 담아내지 못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온전한/숨겨진/드러나지 않은/완벽한 정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주의할 점은 빈칸 무장이 "부정문"이라는 점이다. 출제자의 함정에 빠져 빈칸의 내용에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②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이다.

33번 빈칸 추론 [정답 4]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항이다.

우선 지문 전체의 핵심 소재는 '시대를 앞서간 발견/발명의 한계/문제점'이다.

빈칸의 문장에서 "his"는 "Mendel"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그의 통찰들은 빈칸이다." 라는 내용을 통하여 '멘델'의 발견이 이제부터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를 맞이할 것을 알 수 있다. 빈칸 이후의 내용은 잊혀졌던 '멘델'의 연구가 몇 년 새 재발견 되고 있다는 뜻이다. 빈칸 이전의 내용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발견과 별명들은 사회/세상에 수용되지 못하고 실패 했다가 이후에 재발견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사례가 '멘델'이며 그의 혁신적 통찰이 35년간 무시되었다는 내용이다.

주의할 것은 빈칸 문장이 독립적 문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전 + 이후 문장을 합쳐 하나의 문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전 문장은 "멘델의 발견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타났다"이며 이후 문장은 "멘델의 잊혀졌던 연구들이 재발견되었다"이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가 "빈칸"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소거하면 빈칸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④ were only one step away"이다.

34번 빈칸 추론 [정답 4]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항이다.

우선 지문 전체의 핵심 소재는 '사진술 출현의 영향'이다.

우선 빈칸 문장이 글의 시작이며 들어갈 내용이 "사진술이 있기 이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후 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실'로 압축 된다. 첫 번째는 사진술의 발명은 이미지의 무한 재생산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소비자 자본주의와 맞물려 이미지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는 사진술은 공간들의 시공간적 순환을 위한 역동적인 전달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진술의 가져온 두 변화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적절한 표현은 '⑤ places did not travel well'가 타당하다.

35번 무관한 문장 [정답 3]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내용의 문장을 찾는 문항이다.

대체로 1번 선택지가 시작되기 이전의 초반 내용으로 글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엄격하게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 문장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항이다.

글의 주제는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는 상당히 많은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제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조직으로 재택근무 제도가 확산될 것을 예측하면서 마무리한다. 그러나 ③번 문장은 '재택근무에 맞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전체 글의 맥락과 완전히 무관하다.

36번 글의 순서 [정답 4]

제시문 이후에 이어질 단락의 순서를 찾는 문항이다.

대체로 36번은 2점 문항답게 명시적인 단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나, 그 단서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문제역시 (B) 단락의 'these tasks'와 같은 명시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의 적용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우선 세 단락 모두 '일반화와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으로 단락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한 경우는 내용의 구체적이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제시문에서는 'ability to classify and generalize'는 유용한 특성이지만 'high cost'를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바로 이어질 내용은 'stereotype'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 예상 가능하다.

(A)의 내용은 우리가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분류'작업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고정관념화의 바탕이 된다는 것과, 이것은 오직 차별성과 변형의 정도에 대한 많은 증거를 검토한 이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B)의 내용은 우리의 뇌는 의식하지 못한 채 'these task'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과, 고정관념의 문제는 '부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의 부족과 '사고의 경직'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 단락에서는 '고정관념'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편견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고정관념은 '일반화'와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
 단락 간 내용의 흐름을 미루어 보아 고정관념의 개념에 대한 편견과 이를 부정하는 (C)단락을 첫 번째로 둔 이후 고정관념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A)가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B)에서 'these task'가 (A) 단락의 차별성, 변동의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검토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37번 글의 순서 [정답 5]

제시문 이후에 이러질 단락의 순서를 찾는 문항이다.

절대 평가 이후로 통상 37번은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모의평가 37번 역시 모든 단락에 명시적 단서를 배치하여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더 중요한 문항이다.

우선 (A)단락의 'In contrast'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 이전/이후 문장이 대조적(정반대)의 사실로 이어져야 한다. (B)단락에서 'this area'는 직접 지시하는 표현이 특정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 해결의 방해요소가 된다. 오히려 '식물의 경험'이라는 개념과 (C) 단락의 '식물의 기억'을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두 단락의 상대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C)단락의 'but'은 내용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시문의 'gardner'를 (C)의 'caretaker'로 간주하면 두 단락은 'caretaker'의 유무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But'을 통해 연결 할 수 있다.

38번 문장의 위치 [정답 5]

제시된 문장이 본문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찾는 문항이다.

전통적으로 제시문장에 명시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전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절대 평가 이후에는 이후 내용에 대한 접근법도 중요시 되고 있다.

우선 제시문장에서 명시적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 내용상 단서로 'could be performed with millisecond precision'에 주목해야 한다.

제시문에 직접 단서가 없는 경우 본문의 내용 또는 지시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난 지점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번 이후의 'This microlevel access at once'이 가리킬 수 있는 내용이 이전에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역할이 정해진다. 이 경우 'millisecond precision'와 'microlevel access at once'의 의미상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9번 문장의 위치 [정답 3]

제시된 문장이 본문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찾는 문항이다.

전통적으로 제시문장에 명시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전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절대 평가 이후에는 오로지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맥의 변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선 제시문장의 내용 중 '**비교급**'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비교급의 비교 대상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은 이전에 언급되어야 한다. 예술작품/작가에 대한 '친밀도'가 처음 언급되는 것이 ②번 이후라는 것을 주목한다. 이때 ③번 이후에 'this is because'가 요구하는 문맥을 이전의 내용에서 찾을 수 없다. 'this is because'는 이전 문장이 '결과'에 해당한다. 이때 제시문에서 재료와 기법에 대한 "더 깊은 친밀도"가 유용하다는 내용이 필요한 문맥을 충족할 수 있다.

40번 요약문 완성 [정답 2]

요약문의 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찾는 문항이다. 통상적으로는 (A), (B) 모두 단어의 중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문제 해결이 용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모평에서는 두 빈칸이 모두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기존의 기출문항의 패턴에 익숙한 수험생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소비될 위험성이 보인다. 먼저 요약문의 내용은 “역사적 허구는 **“(A)한 증거를”** 이용하여 과거를 재구성하지만, 이것은 설명의 동기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B)한다.”**이다.

우선 (A)의 경우 본문의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fiction’이라는 단어의 성격이다. ‘허구’를 통해 빈틈을 메운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한 설명’을 구성하게 될 것은 타당한 추측이며 따라서 (A)의 정답은 ‘insufficient’이다. (B)의 경우는 역사적 허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 학습하게 한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이해를 ‘enhance, enrich, improve’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B)의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A)를 통해 정답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1번 글의 주제 [정답 1]

글의 제목을 찾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무엇보다 지문의 길이에 압도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이 문항은 단순한 논리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통해 도출된 주제와 가장 잘 상응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이 다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번 모평 역시 유사한 내용의 반복 서술을 통해 지문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틀렸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ontents”와 “contexts”의 개념을 제시한다. 대체로 사람은 학습 이후 “contents”는 기억하지만 “contexts”는 망각하는 선별적 기억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글의 요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이다.

42번 문맥상 어휘의 쓰임의 적절성 [정답 5]

각각의 어휘가 문장 또는 문단의 문맥에 비추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과거 어휘의 사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극한의 난이도를 보여준 사례가 많다. 이번 문제 역시도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유형이다.

우선 글의 요지를 바탕으로 인간의 기억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둔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불완전한 기억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는 사실도 바탕에 둔다. 이제 (e)가 포함된 문장의 의미를 살피면 “지식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출처를 잊었다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쉽다/어렵다).”이다. 인간이 지식의 출처를 잘 잊는다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의 출처를 대부분 잊었을 것이다. 따라서 ‘e’에 들어갈 표현으로 “challenging(까다로운 어려운)”은 적절하지 않다.

43번 글의 순서 [정답 4]

앞서 36, 37번과 달리 가벼운 내용이며 대체로 시간/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항이다. 글의 순서는 ‘Sean’을 걱정하는 ‘Alex’가 ‘Sean’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치료를 받으러 올 것을 말하는 (A)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Alex’의 제안을 받고 ‘Sean’의 대응이 나오는 (D)가 타당하다. (D)의 마지막은 ‘Sean’이 그의 개 ‘Toby’와 하이킹을 떠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하이킹후 정상에 도달한 내용이 나오는 (A)가 타당하다. (A)의 마지막은 ‘Sean’과 ‘Toby’가 숲에서 밤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은 밤이 지난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 (C)가 타당하다.

44번 가리키는 대상 [정답 3]

각각의 대상이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a), (b), (d), (e)는 모두 ‘Sean’을 가리킨다. 그러나 (c)의 경우 ‘Toby’를 가리킨다.

45번 글의 내용과 일치 여부 [정답 3]

본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항이다. (B) 단락에서 밤이 오면서 바람이 몰아친다는 내용이 온다. 그리고 (C)를 보면 새벽이 되어갈 때 길었던 밤이 지났다는 표현과 함께 날씨가 좋아졌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㉓ 밤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